

세력 커지는 태풍 '링링'...7일 서해안 상륙

고수온 통과하며 강급 발달 최대풍속 45%...호남 직격 강풍에 많은 비 큰 피해 예상

광주·전남지역에 6일 밤부터 8일 오전까지 제13호 태풍 '링링'(LINGLING)이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4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운암동 광주기상청 1층 예보실에서 '제13호 태풍 링링 현황 및 전망 브리핑'을 갖고 "링링이 점차 세력을 키우면서 한반도 방향으로 북상 중이고 광주·전남에도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태풍 링링(4일 오후 3시 기준 중심기압 980hPa·최대풍속 29%·강풍반경 280km)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소형급 태풍으로,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450km 부근에서 시속 5km 속도로 천천히 북동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예상 경로대로라면 이 태풍은 광주·전남을 오른쪽에 두고 큰 피해를 준 뒤 서울 등 수도권을 관통할 것으로 보인다. 태풍 발생시 오른쪽에 놓인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링링은 북태평양고기압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다 6일 오후 3시께 제주 서귀포 남서쪽 약 440km 부근 해상에 진입해 7일 오전 9시께 목포 서쪽 80km 부근 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빠른 속도로 북동진해 7일 오후 충북 서산을 거쳐 서울을 관통한 뒤 함경북도 함흥 인근을 지나면서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전남은 6일 밤부터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태풍 특보도 6일 오후 서해 남부·남해 서부 먼바다를 시작으로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태풍의 특징 중 하나는 몸집이 점점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9도 안팎의 고수온해역과 태풍이 발달하기에 좋은 높은 해양열량대를 지나 북상

하다 상층의 공기를 끌어 올리는 힘이 강한 '상층 발산역'을 만나면서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4일 밤 9시를 기점으로 소형급이었던 링링은 강급 강도의 중형 태풍으로 발달할 전망이다. 링링의 최대풍속도 4일 오후 3시 기준 29%수준에서 5일 새벽 3시 32%, 6일 새벽 3시 39%까지 세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동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4일 오후 3시 시속 5km 수준에서, 한반도 상륙이 예상되는 7일 오후 3시께에는 시속 34km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전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이번 태풍은 6-8일 동안 광주·전남에 50-100mm 정도의 비를 뿌리겠다고, 남해안지역과 일부 산간지역에는 100-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50mm 강한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특히 태풍이 한반도를 따라 일직선으로 북상함에 따라 광주·전남 등을 향해 남풍이

강하게 불것으로 관측된다. 강풍으로 비닐하우스, 과수능가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우려됨에 따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기상청은 6일 오후 해안에는 최대 순간풍속이 35-45%, 내륙에도 20-30%의 강풍이 불 것으로 내다봤다.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서해·남해 전해상의 물결은 최대 9m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7일 새벽은 바닷물이 높아지는 천문조와 겹쳐 해안가 범람 또는 침수 피해도 우려된다.

이번 태풍은 큰 피해를 안겼던 2010년 7호 태풍 '곤파스'와 2000년 12호 태풍 '쁘라빠룬' 등의 진로와 성격이 비슷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의 속도에 변동성이 크고 강도에도 일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있지만, 서해상으로 들어오는 경로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시설물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7 해질 18:55 달뜨기 12:21 달지기 23:00

그리운 맑은 하늘
흐리고 가끔 비오다 오후부터 그치는 곳 있겠다.

광주	비	23/29	보성	비	22/27
목포	비	23/28	순천	비	23/29
여수	비	24/27	영광	비	23/28
나주	비	23/29	진도	비	23/28
완도	비	23/27	전주	비	23/29
구례	비	22/29	군산	비	23/30
강진	비	23/28	남원	비	22/29
해남	비	22/28	흑산도	비	22/26
장성	비	22/28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풍향		
	파고(m)	파고(m)		
서해 앞바다	남동~남	0.5~1.0	동~남동	0.5~1.0
남부 먼바다	남동~남	1.0~2.0	동~남동	1.0~3.0
남해 앞바다	남동~남	0.5~1.0	동~남동	0.5~1.5
남해 서부 먼바다(동)	남동~남	1.0~2.0	동~남동	1.0~3.0
남해 서부 먼바다(서)	남동~남	1.0~2.5	동~남동	1.0~3.0

◇생활지수

- 위험: 식중독
- 보통: 자외선
- 좋음: 미세먼지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1:21	06:20
	23:51	18:58
여수	06:42	00:42
	19:24	13:25

◇주간 날씨

6(금)	7(토)	8(일)	9(월)	10(화)	11(수)	12(목)
☁	☁	☁	☀	☁	☁	☁
24/30	21/29	21/30	22/30	21/29	21/28	21/28



추석 준비 참기름 짜기 / 추석울 열을 앞둔 4일 광주시 남구 월성동의 한 방앗간 앞에서 주민들이 참기름을 짜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한빛원전 6호기 정비 마쳐 발전 재개, 내일 전출력 도달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원전 6호기(100만kW급)가 제12차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3일 오후 7시 18분 발전을 재개, 오는 6일 전출력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한빛 6호기는 점검 기간 원전연료 교체, 전력설비 보호계전기 개선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설비개선과 기기정비를 수행했다.

한빛원전 측은 격납건물 내부철관(CLP) 부식·외벽 공극 점검 후 종합누설률시험(격납건물 내부에 압력을 가해 누설률을 측정하는 시험)을 통해 구조적 건전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원자안전위원회는 지난 2일 한빛 6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올 마지막 모의평가...국어·수학 쉽고 영어 어려웠다 EBS 교재 체감 연계율 낮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치른 수험생들은 대체로 국어와 수학은 다소 쉬웠으나, 영어는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광주지역 진로·진학담당 교사들 역시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 국어와 수학의 난도는 평이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른바 '킬러문항'인 고난도 문제가 쉬워진 반면 일반 문항이 어렵게 출제된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장광재 광주시교육청 자료분석팀장(승덕고 교사)은 국어 영역에 대해 "EBS 수능 교재와의 체감 연계율은 다소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수학영역은 가형과 나형 모두 지난해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 쉬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가형과 나형에서 '킬러문항'이 비교적 쉽게 출제돼 상위권 학생에겐 어려운 수준이 아니었지만, 중위권 학생에 대한 변별력은 충분했을 것이라는 분

석이다. 또 킬러문항이 쉬워진 대신 변별력 확보를 위해 일반 문항의 풀이과정도 어려워지는 성향을 보였다.

반면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영어 영역은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고, 지난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는 약간 어렵게 출제됐다는 것이다.

고난도 문항은 유형의 난이도가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지문 해석이 어려워 시간을 더 요구

하는 형태로 출제됐다는 평가다. 문제가 어렵다기보다 시간관리로 인해 전체적인 등급이 다소 하향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장광재 팀장은 "지난해 6월 모의평가는 어렵고 9월은 다소 쉬웠으나, 막상 수능은 어려웠다. 올해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오는 11월 수능도 지난해처럼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9월 발생건수 증가...가을철 식중독 주의보

더위가 한풀 꺾인 9월에도 지구 온난화 영향 등으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매년 9월 식중독 발생건수는 2014년 27건에서 지난해 56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2014-2018) 계절별 연평균 식중독 발생건수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6-8월)이 113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을철(9-11월)이 9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광주 9월 식중독

발생 현황은 4건(환자 62명), 전남은 11건(150명)이었다. 최근엔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은 분변에 오염된 물, 오염된 물로 씻은 채소, 도축 과정에서 오염된 육류 등을 통해 이뤄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손씻기를 철저히 하고, 가공류·수산물·육류를 씻을 때 채소·과일 등에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용희 기자 kimyh@

광주 북구, 추석 명절 주민생활안정 종합대책 추진

광주시 북구가 추석에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민 생활안정 종합대책 운영에 나선다.

북구는 "추석을 맞아 오는 15일까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귀성 성묘객 교통 대책, 재해재난 안전사고 대책, 비상진료 대책 등 9개 분야의 종합대책을 중점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북구는 생활·음식쓰레기 및 재활용품 등 폐기물의 경우 연휴기간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추석 당일인 13일과 다음날인

14일은 미수거하고 나머지 연휴기간인 12일과 15일은 수거한다. 성묘객이 많이 찾는 국립 5·18민주묘지와 영락공원에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특별교통대책 현장 상황실을 운영한다.

북구 보건소는 12-15일 동안 4개조 10명으로 의료기능반을 편성해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북구내 150곳의 당직 의료기관 및 당번 약국 지정을 통해 각종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에 나선다.

/정병호 기자 jusbh@

손해보험협회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해상·항공·화재보험, SAMSUNG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KOREAN K, SGI서울보증, AXA AXA다이렉트 리얼티, AIG, The K 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